



우리은행-유네스코, 사회공헌 등 민관협력

우리은행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브랜딩 및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사회공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은 행장(오른쪽)과 윤명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캠코, 부산진구 '캠코브리리 4호점' 재개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남부산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리리 4호점'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 이현승 부산진구 국회의원, 구정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개소를 축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에몬스, 장학금 수여식… 20명에 1억 전달

에몬스는 지난 5일 인천 남동공단 본사에서 '2026 에몬스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선 총 20명의 대학생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경수 에몬스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동화기업, '동화자연마루' 퍼스트브랜드 대상

동화기업 건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목질 바닥재 부문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7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동화자연마루는 다양한 규격과 디자인, 기능성을 고려 갖춘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 목질 바닥재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조은정 전략마케팅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화기업

휴롬, '과채로움' 브랜드 론칭

휴롬이 과일과 채소를 업선해 큐레이션하는 '과채로움' 브랜드를 론칭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

7일 휴롬에 따르면 새 브랜드 '과채로움'은 단순히 과채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계절, 이 순간에 먹어야 할 이유'를 큐레이션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것만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다.

새로 연 과채로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엔자임 주스키트와 신선한 제철 과채 원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채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HD현대重, 시민 구한 학생들 표창… 안전가치 드높여

윤재준·문현서군에 장학금 전달
“직원 등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시민 생명을 구한 학생들을 표창해 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사회공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은 행장(오른쪽)과 윤명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생명을 구한 용기처럼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

2026. 01. 06. (화)



HD현대중공업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직원 자녀 등 학생 2명을 회사로 초청해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 금석호 사장, 문현서 군, 윤재준 군, HD현대중공업 윤형민 기사).

/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시민 생명을 구한 직원 자녀 등 학생 2명을 회사로 초청해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 금석호 사장, 문현서 군, 윤재준 군, HD현대중공업 윤형민 기사).

/HD현대

제 대응한 용기를 치하했다. HD현대중공업은 두 학생을 대상으로 아드투어를 진행하고, 조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특히 윤재준군의 아버지인 윤형민

기사(HD현대중공업 안전보건지원부, 특수구조대원)가 강사로 나선 특별 안전 교육도 마련됐다. 윤 기사는 특수구조대원으로서의 경험담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

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재준 군과 문현서 군은 지난달 28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 갑자기 쓰러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주변이 당황한 상황에서도 두 학생은 남성을 눕혀 기도를 확보한 뒤 약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상황은 목격자가 SNS에 게시하면서 알려졌고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두 학생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은 안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해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인사

◆ 브이아이피자산운용 △ 그로스팀장 이사 조창현 △ 벨류팀장 이사 박성재 △ 경영기획팀장 이사 심민규

◆ 유유제약 ◇ 임원 영입인사 △ 본부장(상무) 장홍석 ◇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 유유테이진메디케어본부장(이사) 승진 △ 마케팅본부 홍태의

◆ 머니투데이 ◇ 논설위원실(보임) △ 주필 정철근(전보) △ 논설위원 배성민 △ 논설위원 강기택 △ 논설위원 양영권 △ 논설위원 김재현(승진 및 전보) △ 편집담당 상무 김익태 △ 편집국장 박재범

◆ 파이낸셜투데이 △ 편집국장 김지성

부음

▲ 이선흥(합동건설 회장, 전주상공회의소 제22·23대 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제23·24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제33대 회장)씨 별세, 황영순씨 남편상, 이정미씨 부친상, 김종호씨 장인상 = 7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063-250-1444

▲ 권혁철씨 별세, 이해자씨 남편상, 한수일(NH아문디자산운용 상무)씨 장인상 = 7일 오전 7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9일. 031-787-1500

▲ 임달호씨 별세, 임기태(팀쿠키 부대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부회장)씨 부친상, 노희정씨 시부상, 임우준씨 조부상 = 7일, 국립중앙의료원 305호, 발인 9일. 02-3010-2000

▲ 남태희씨 별세, 남경욱·남경호(GS건설 부사장)·남영미씨 부친상, 명민주씨 장인상, 박윤정·심준희씨 시부상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02-2072-2010

▲ 양옥진씨 별세, 신재우씨 부인상,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신승호·신병호씨 모친상, 박은숙·고민정씨 시모상 = 7일, 제주 제주시 훈길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064-744-1245

▲ 이정자씨 별세, 성백유(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씨 장모상 =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9일. 031-787-1500

삼성SDS 컨소,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첫 발

지반 등 주변 인프라 여건 점검

삼성SDS 컨소시엄은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공모 참여 이후 첫 공식 대회 일정으로 전남 해남에 위치한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민·관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GPU 등)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조성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2030년 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민·관 출자와 정책금융 대출 등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연산 자원(GPU 등)을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PC 설립, 데이터센터 설계 및 인허가, 사업 기획과 사업모델 수립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전라남도 등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

로 선정된 솔라시도를 찾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하고, 지반조사 진행 상황과 전력·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점검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금융심사와 우선협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협약을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PC 설립, 데이터센터 설계 및 인허가, 사업 기획과 사업모델 수립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전라남도 등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

로 선정된 솔라시도를 찾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시찰하고, 지반조사 진행 상황과 전력·통신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을 점검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금융심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금융심사와 우선협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협약을 거쳐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아시아나, 14일부터 인천공항 승객 맞이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출국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항공사 출범에 맞춰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승객을 맞이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0시 이후 도착 편 승객은 T2로 입국하게 되며 14일 오전 7시 첫 출발편인 일본 오사카행 OZ112편 승객부터 T2에서 탑승 수속 및 출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홍보 역량을 총동원 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여행사 공식 홈페이지부터 예약 결제창, 발권 후 발송되는 예정안내서(E-TICKET) 까지 항공권 예매의 모든 단계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승객에게 터미널 이전 안내를 하고 있다.

터미널 이전 사실을 안내한다.

또 차량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가로등에 터미널 이전 안내 배너와 이동형 광고 등을 설치했다. 공항철도 이용객에는 열차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도 안내판을 세웠다. /양성운 기자 ysw@